

## 해외리포트

### 사람이 창조한 사람의 땅 네덜란드



권영현 |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은 세상을 창조했고 네덜란드 사람은 땅을 만들었다.” 구태와 속박을 등지고 자유를 향한 사람들이 대륙의 북쪽 끝 불모지에서 땅을 늘려가며 신화를 이루어 낸 것이다. 강대국의 간섭과 지배, 세계의 해상권을 갖기도 했고 다시 모든 것을 잃는 역사의 부침 속에서 당차고 알뜰한 선진 복지국으로 우뚝 선 나라. 디자인 선진국이기도 한 네덜란드와 도시브랜드의 대표사례인 암스테르담의 디자인 정책에서 도시 이미지 만들기를 살펴본다.

## 암스테르담의 가치

### ① 흔적의 가치, 전통 건축물

암스테르담은 13세기 경 어민들이 암스텔강에 독을 쌓고 정착하기 시작하여 네덜란드가 세계의 맹주였던 17세기 무렵, 도시확장계획에 의해 늘지였던 이곳의 물을 빼고 개간하면서 지금의 도시 모습이 이루어졌다.

암스테르담 구시가지의 전통 건축물은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형성된 것이다. 서로 닮은 모습에 비슷한 높이의 수많은 박공 구조의 건물들이 지금은 암스테르담을 특징 지워주는 상징이 되고 있다. 석재를 사용하는 유럽의 여느 도시와는 달리 이곳의 건축물은 벽돌이 주재료로 이웃 건물과 공간 없이 어깨를 마주하며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독특한 건축 양식과 배치는 석재를 구하기 어려운 여건과 지반이 약해 단독 건축물로는 지지하기 어려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었

## 사람이 창조한 사람의 땅, 네덜란드

다고 한다.

수세기가 지나는 동안 건물이 좌우 또는 전면으로 기울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마저도 암스테르담의 고유한 정취를 더해주는 매력적인 요소로 더해지고 있다.

### ② 그림의 가치, 자전거와 트램

고풍스런 도시 건축물이 암스테르담의 정적인 기반이라고 하면 그사이를 유연하게 흐르고 있는 자전거와 트램(굴절버스)은 도시의 살아있음을 발산하는 동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광장 옆 대규모 자전거 보관타워〉



〈주요교통수단인 트램(굴절버스)〉

특히 자전거는 네덜란드의 도시 특성을 지니주는 대표적인 이미지이다. 암스테르담만 하더라도 중앙역 광장 옆에 위치한 3층 규모의 자전거 주차타워에 꽉 채워진 자전거에서 보듯이 자전거의 생활화가 보편화되어 있었다. 네덜란드의 자전거 교통분담률은 27%로 전 유럽에서 가장 높아(덴마크 19%, 독일 10%), 자전거 도시로 널리 알려진 코펜하겐이나 벨리브(Velib)의 도시 파리를 압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전거의 원조 도시답게 자전거 보관 시스템도 선 보이고 있다.

암스테르담의 도로는 일반적으로 트램-차도-보도-자전거 도로로 구성돼 있다. 도로 중앙에 트램 차로가 있고 양옆으로 차로가 있다. 차로 다음에는 차로 넓이의 1.5배인 보도가 이어지고, 도로 맨 끝으로 1차로 넓이의 자전거도로가 있다. 결국 차로는 전체 도로 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도로 건설목

에는 자전거와 보행 횡단로가 각기 분리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등과 자전거용 신호등이 따로 있다. 자전거용 신호등은 위쪽과 아래쪽에 신호등을 각기 달아놓았는데 아래 신호등은 자전거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어 설계된 것이다.

차로와 자전거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자전거 통행이 우선이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차도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직진 신호가 떨어지면 자전거가 우선 출발하는게 규칙이다. 자전거 도로에서는 보행자 보다 자전거가 우선이라 연수 내내 자전거 도로에서의 안전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

## 해외리포트

우기도 했다.

자전거와 트램은 도시의 살아있는 리듬을 보여주는 바로메타인데, 우리의 도시처럼 자동차로 인한 속도감이 없으면서도 여유 있는 느낌과 함께 건강한 도시의 활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 ③ 열린 가치, 도시의 동맥 운하

암스테르담의 관광은 운하에서 시작하여 운하로 끝난다는 말이 있듯이 암스테르담을 연결하는 주요 네트워크는 도로가 아닌 거미줄처럼 연결된 운하이다. 운하 구역은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수립된 새로운 항구도시를 위한 프로젝트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운하 구역은 유서 깊은 구 시가와 이를 둘러싼 중세 항구의 서쪽과 남쪽 운하망으로 구성된다. 네덜란드 황금기에 도시의 요새화된 경계부를 안쪽으로 감싸 안고 도시 외곽 경계지점이 된 '싱겔 운하'에 의해 이루어졌다.

북해와 이어지는 운하는 지금도 수운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선상주택(선박을 고정시켜 놓은 형태와 수중에 기초를 설치하여 주택을 올린 수상가옥 형태가 있음)이 이색적인 운하의 도시임을 보여준다. 도시의 곳곳과 70여개의 섬을 이어주는 500여개의 고풍스런 다리를 한자리에서 올라다 볼 수 있는 유람선 크루즈가 관광자원화 되어 있다.(최근에는 한국어 안내 멘트가 시작됨)



〈운하크루즈〉

## 회화예술의 부흥지

네덜란드에는 산업, 스포츠 등 두드러진 위세에 가려 드러나지 않는 자산이 있는데 바로 회화예술이다. 알프스 남쪽 지역에서 르네상스가 한창일 즈음, 북쪽인 네덜란드를 포함한 프랑드르에서는 회화예술의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장 우선되는 공헌은 이곳 프랑드르를 기반으로 하는 플레말레 화가와 얀 반 아이크(Jan van Eyck)에 의해 유채(油彩·유화)가 발명된 것이다. 유채의 발명은 이제까지의 프레스토나 템페라의 한계를 뛰어넘는 한층 진보된 표현수단을 마련해주는 전환점이 되었다.

## 사람이 창조한 사람의 땅, 네덜란드

또 한 가지는 주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16세기 네덜란드는 종교개혁의 여파로 북부지방이 독립국가인 네덜란드로 출발하면서 네덜란드 회화는 이탈리아적인 요소를 천천히 조직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시기의 네덜란드 회화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전통적인 종교적 주제를 보완하여 '레퍼토리'를 부여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교회의 회화 주문이 점차 드물어지게 되자 서민들의 세속적인 취향에 호응하면서 풍경화, 정물화, 세속화가 비로서 유행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당시 네덜란드에는 프로테스탄트의 성상파괴 열풍이 널리 퍼져있었음.)

네덜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인상주의 회화의 거장 빈센트 반 고흐의 컬렉션을 모아놓은 반 고흐 미술관과 마주하고 있는 네덜란드 국립미술관(RIJKS MUSEUM)에는 15세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회화 작품 등이 250개의 전시실에 5,000점이 넘게 전시되고 있다.

네덜란드 회화의 모태가 되는 15세기 이탈리아 회화인 피에르 디 코시모, 베네치아파 화가인 카를로 크리벨리의 작품과 15세기에서 16세기 교회의 제단을 장식했던 반 오스트사넨의 패널화, 매너리즘 회화, 초상화, 카라바지오를 추종하던 위트레흐트의 화가들인 브루겐 회화의 황금기인 17세기 풍경화, 정물화, 초상화가 전시되고 있으며, 얀 반 고이엔, 초상화의 거장 프란스 할스, 피터 폴 루벤스, 빛의 화가로 불리는 최고의 거장 렘브란트 반 리진의 '야경' 등이 전시되고 있다.

## 자원의 상품화

### ① 잔세스칸스(Zaanse Schans)

암스테르담에서 북쪽으로 13km 떨어진 잔 강변에 위치한 마을인 잔세스칸스는 풍차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네덜란드 민속촌이다. 이 마을은 네덜란드의 명물인 풍차가 들어선 17~18세기 풍의 목조가옥과 방목되는 양들로 동화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러한 광경은 플랑드르 화가들의 풍경화에 등장하는 목가적인 소재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모습이다.

풍차가 제재나 안료 가공의 동력으로 주로 사용되었던 18세기에는 이 곳에 700개가 넘는 풍차가 있었으나 산업혁명의 기계화에 밀려 지금은 관광용으로 몇 곳만 남아 있다.

강에서 조금 떨어진 나막신 관광기념품상점에서는 연식이 꽤 되어 보이는 프랑스제 목공기계를 이용하여 나막신을 가공하는 장면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목장 앞에는 현지에서 만들어진 치즈와 우유를 맛보고 구입할 수 있는 낙농제품상점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치즈 만드는 과정을 일반인들에게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풍차마을의 운영은 지역 농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영농조합 형태로 각기 경작이나 목축 가공, 판매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기념품과 낙농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는 레이스 고깔모자와 나막신 등 네덜란드 전통의상을 갖춰 입은 판매원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해외리포트



〈큐켄호프 꽃축제의 튤립〉

### ② 유럽의 봄 큐켄호프(Keukenhof)

암스테르담에서 약 18km 떨어진 리세(Lisse)에 있는 큐켄호프 공원(32헥타르/96,799평)에서는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큐켄호프 꽃축제가 열린다. 큐켄호프 꽃축제는 네덜란드의 주요 생산물인 튤립을 주제로 화훼산업의 진흥과 지역 관광 활성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데 매년 이 기간 동안 백 만명이 넘는 외국 관광객이 네덜란

드를 방문한다고 한다.

이 곳은 15세기경에 백작 부인인 자코바 반 바이에렌(Jacoba Van Beieren) 소유지의 일부로 연회를 위한 식재료(채소, 허브, 사냥감)를 공급하는 장소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부엌(keuken)을 공급하는 정원(hof)이라는 뜻으로 지금의 이름인 큐켄호프(keukenhof)을 갖게 된 유래가 되었다.

꽃 축제를 시작한지는 60년이 되었으며, 올해는 'Heart of Europe Poland' 라는 주제로 전시되고 있다. 튤립이 만개하는 3월말에서 5월말 사이에는 큐켄호프 최대의 경관을 볼 수 있는 시기로 6백만 송이의 튤립과 히아신스, 수선화 등 엄청난 규모의 구근 화훼류와 아름다운 관목이 발산하는 다채로운 색깔로 가득 찬다.

안면도꽃박람회를 두 차례 치른 우리로서는 관심이 많은 장소로 기존의 정원을 기반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었으며, 인공물이나 인위적인 조성에 의한 전시연출 보다는 강과 나무와 잔디, 호수 등 본래의 자연 여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시되는 화초의 품종의 표기뿐 아니라 주제어를 부여하여 표시한 점도 발상이 돋보였다.

꽃 전시 이외에도 설치예술, 소규모 공연이 이루어지며 올해에는 자동차에 설치된 이동식 자동 연주기가 네덜란드 민속음악을 연주하고 관람객들(특히 노년 부부들이 많음)이 호응하는 등 주민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 ③ 하이네켄 체험전시관(Heineken Experience)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 중 하나인 하이네켄 맥주를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암스테르담 광장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 체험관은 1867년에 세워져 1980년대 말까지 양조장으로 사용하던 장소를 관광객을 위한 체험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 있다.

하이네켄은 1863년 게라드 아드리안 하이네켄에 의해 설립된 맥주 제조회사로 그때까지만 해도 소규모로 이루어지던 맥주유통을 대량생산 및 유통으로 이끌어낸 계기를 이끌어냈다. 하이네켄 맥주의 독특한 풍미는 특유의 효소에 있는데, 1866년 루이 파스퇴르의 제자인 엘리온 박사가



## 사람이 창조한 사람의 땅, 네덜란드

에이-이스트(A-Yeast)배양에 성공한 뒤 저면발효(Bottom-Fermentation)를 활용한 양조기법으로 현재까지 하이네켄의 독특한 맛을 이어오고 있다.

이 체험관은 입장 때에 단추가 박힌 고무 팔찌를 채워 주는데, 단추는 관람도중과 마지막 코스인 시음바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시 콘텐츠는 하이네켄의 역사(용기, 라벨, 유통 방식 등), 초기에 사용되던 설비 등 고풍적인 요소와 4D 동영상(움직이는 관람석, 물 분사)과 같은 새로운 매체가 결합되어 매우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있다.

특히,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콘텐츠가 눈길을 끄는데 네덜란드의 경관을 배경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거나(나중에 이메일로 보내준다.), 자기 이름이 새겨진 맥주병 기념품 등은 관람객의 호응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초기에 사용했던 발효조〉

### ④ 큐브하우스(Cubic House)

네덜란드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렘 쿨하스 등 수많은 현대 건축가들을 배출한 곳으로 많은 건축 학도와 건축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지이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조성되는 대규모 건축물의 모티브를 제공하는 곳이다.



〈큐브하우스〉

로테르담 블라크 역 앞에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기괴하기도 한 일련의 건물 군들을 만날 수 있다. 건축가들이 자신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조성한 일종의 새로운 발상을 실현하는 건축 전시장인 곳이다. 그중 대표적인 큐브하우스는 1984년 해체주의 건축가 피트 블룸(1934~1999)의 설계로 만들어진 집단 주택으로 육교와 같은 사각기둥 위에 정육면체가 45도 기울어진 채 벌집처럼 연결되어 있는 건축이다. 모두 38개의 작은 큐브와 2개의 대

형 큐브, 14개의 상점이 서로 맞물려있는데, 실제 주민이 거주하며, 일부는 관람(유료)용으로 쓰여 지기도 한다. 큐브 내부를 살펴보면 3층까지 관통하는 중앙의 나선형 계단으로 아래층부터 연결되며 각 방들이 배열되어 있다. 1층은 거실과 식당, 2층은 서재, 침실, 욕실, 3층은 온실이나 휴식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해외리포트

건축가의 평범함을 뛰어넘는 발상도 대단하지만 건축가들의 이러한 실험적인 시도를 시민들이 기꺼이 이해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정서와 풍토가 새로움을 창출해 낼 수 있는 터전을 이루고 있었다.

## 도시 이미지

### ① 옥외광고물

네덜란드의 도시들은 유럽의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상업의 간판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최소화되어 설치되고 있다. 우리와 달리 상가 건물의 복합용도(1층은 상점, 2층은 사무실, 3층 이상은 주거), 지번으로 목적지 찾기, 한 장소에서 장기간 영업 등으로 큰 간판이 필요 없는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상공업자들로 시민에 의해 형성된 국가로 상공업자의 동업자 조직인 길드의 강령에 따라 동종 점포의 개설 등 과당 경쟁은 근본적으로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내부 강령은 취급 품목 등 업종의 선택은 물론 간판의 부착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와 같은 간판 경쟁 양상을 볼 수가 없다.

여기에 네덜란드의 도시들은 중세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도시로 지금에는 이러한 역사적인 건축물을 보존하는 규제로 인하여 간판의 규모나 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업종에 따라 기준 이상의 면적이나, 수량, 형태나 돌출간판과 같은 부가 간판을 부착할 경우 시당국에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간판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기준 이상의 간판을 부착하기는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 ② 도시디자인 정책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상업 및 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로 마케팅 관점의 디자인 수준과 활용이 매우 높고 활발한 국가이다. 네덜란드의 디자인 경향은 국가의 형성과정과 영악한 자연환경에서 기인하는데 장식적인 요소나 부가적인 기능을 최소화하는 실용주의와 단순주의/미니멀리즘(minimalism)을 지향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공공디자인의 효용가치를 일찍 부터 인식하여 개발하고 실현하였다. 이제는 범용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된 시설의 안내 유도 사인 시스템의 효시도 1963년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의 안내사인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경직될 수 있는 관공서(경찰서, 소방서) 등의 이미지를 파격적으로 변신하여 시민들에게 친근감과 호응을 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사람이 창조한 사람의 땅, 네덜란드

현재 암스테르담 시의 이미지 정책은 300년전의 역사적인 가치와 DNA를 찾아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여 중세도시와 현대도시의 두 얼굴의 균형을 이루며, 경제, 사회적 이익을 겨냥한 정부 지원 및 보조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IJBURG 전경》

이러한 신구의 균형정책은 자전거 이미지로 대표되는 친환경 도시이면서 자원재생을 통한 클린, 그린도시, IJburg프로젝트(수변 공동체 주거지역 조성계획으로 시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참여)진행에서도 이미지 정책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도시브랜드인 Amsterdam 브랜드의 확산을 위해서는 매체를 활용하는 방안 대신 시민 참여, 공연 등을 통한 홍보의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의 암스테르담 도시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시내의 중심광장에 입체 조형물을 조성하여 별 다른 비용 없이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최근 1개 뿐인 조형물의 호응이 높아지자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절제력을 보이기도 하였다.

## 선진국 문턱에 서서

추방당한 유대인과 아랍인, 프로테스탄트, 실리를 추구하는 상공인들이 만들어 낸 국가, 기괴하고 환상적인 세계를 그려낸 히에로니무스 보스, 동성결혼 합법, 공창제도, 마약(Soft Drug)의 허용과 같은 선입견과는 달리 자유분방한 창의력과 더불어 실용성에 기반하는 절제의 균형이 바로 네덜란드의 실질적인 이미지이다.

보잘것없는 삼류국가가 세계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인종, 종교, 사상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열린 사고와 창의력, 실용성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가혹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재능있는 외국 이주민을 영입한 열린 정책은 네덜란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상대존중과 실용성은 우리의 10배 규모의 대외공공개발원조나 복지, 공공재의 비중과 수준, 교통수단과 주거형태, 신구의 조화를 이루는 도시이미지 정책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이제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인구 5,000만명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20-50 클럽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네덜란드는 바로 본격적인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전반적인 방식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